

이재명 당대표 민생회복 기자회견(요약)

2023. 11. 2. 목.

성장률 3%

회복을 위한 제안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경제의 근본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무한내핍의 시기>, 가게는 소비하지 않고 기업은 투자를 못합니다. 가게와 기업이 경제적 고통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경제 환경 급변으로 고금리, 고물가는 일상이 되었습니다. 대출 이자 갚기도 버거워, 국민은 아예 지갑을 닫았습니다.

수출로 먹고 살던 우리나라가 12개월 연속 수출 감소에 처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35조원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세계 5위권 수출모범생이 208개국 중 200위로 떨어졌습니다.

<국가부재, 재정공백>

국가란 무엇입니까? 국가의 제1 과제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국민은 <경제 좀 살려 달라>고 절규하는데, 윤석열 정부는 <건전재정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정부가 어떻게 이 정도까지 가게와 기업 고통에 무감각할 수 있는지, 기본적 경제논리에 무지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호황이든 불황이든 재정건전성에만 매달립니다.

올해 2분기 소비·투자·수출이 모두 감소하는 <트리플 위기>가 발생했습니다. 외부충격도 없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정부가 지출을 늘리는 등 경기부양책을 강구해야 하는데 재정건전성에만 매달려 지출을 줄였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경제위기를 심화시켜 오히려 성장률을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세계경제 재편과 침체기에, 경제 3주체의 대응은 과거와 달라야 합니다.

〈**성장과 변화**〉가 경제위기 대응의 핵심입니다.

정부가 나서야 합니다. 성장률 3%를 달성하려면, 경제를 회복시킬 〈**쌍끌이 엔진**〉이 필요합니다. 한 축은 〈**연구기술 개발, 신성장 동력 발굴, 미래형 SOC투자**〉입니다. 또 한 축은 〈**총수요 부족을 개선하기 위한 소비 진작**〉입니다.

정부는 제대로 된 논의도 없이 R&D 예산을 삭감해버렸습니다.

지난 6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대통령 호통 한 마디에, 증액하려던 본래 예산안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늘려야 할 R&D예산을 일괄적으로 줄이다보니, 전기세를 감당 못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은 슈퍼컴퓨터 가동을 중단했다고 합니다. 각종 연구의 매몰비용을 생각하면 R&D 예산 삭감은 절약이 아니라 낭비입니다. **치명적 패착입니다.**



3차 산업혁명을 넘어 미래기술 개발과 미래산업환경 조성에 앞장서야 합니다.

인공지능 로봇을 뛰어넘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먼저 만들어
가야 합니다. 6세대 이동통신, 인공위성과 우주기술에 대한
국가차원의 투자로 성장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합니다. 하지만 올 상반기 벤처투자액은 전년 동기 대비 무려
42% 감소했습니다. 벤처·스타트업 숫자도(전년 동기 대비)
23%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민주당은 대선 때 <모태펀드예산 확대를 통한 벤처투자
10조원 달성>을 공약했습니다.** 올해 기준 모태펀드 예산
(중기부 3,135억 원)을 2배 이상 확대해 창업 뿐 아니라
세컨더리, 스케일업에 더 투자하는 등 벤처·스타트업을
활성화 해야 합니다.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미래형 SOC 투자>가 절실합니다.

제조업 강국에서 이제는 디지털·에너지 강국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재생에너지 산업기반은 과거 산업화 시대의 항만·
철도만큼 중요합니다. 재생에너지 산업기반으로서 전국적인
지능형 송배전망 등 인프라 구축이 필요합니다. RE100 특구
지정과 RE100 산업단지 같은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 활성화
가 그 답입니다.

**양극화가 심화되고 실질소득도 감소하는 지금이야말로
성장이 중요합니다.**

**이미 소득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이중지원 효과가 증명된
〈지역화폐〉를 통해 신속히 내수를 회복하고, 지역경제와 골목
경제를 살려야 합니다.**

**경기가 어려울 때 정부는 투자세액공제로 기업의 투자를 장려
합니다. 1년 한시로 〈임시소비세액공제〉를 신설하겠습니다.**

예산의 대폭 증액으로 민생부담을 완화해야 합니다.

가계의 절반이나 실질소득이 줄었습니다. 청년백수 126만명,
고양시 전체인구 보다 많은 청년들이 졸업 후에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공깃밥 2천원, 삼겹살 2만 원.
물가는 계속 오르기만 합니다.

우리나라 일자리의 99%가 자영업과 중소기업인데, 중소기업
과 소상공인의 폐업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의 가스·전기 요금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최근 민간대출의 연체액과 연체율 모두 상승하고 있고,
더 심각한 것은 73%가 만기 1년 이내라는 점입니다.**

민관이 협력하여 3조 원 가량 이자부담을 줄여주는 <금리인하 프로그램>을 제안합니다.

**독일은 지난 5월 서민 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중교통
무제한 정기권인 49유로(7만원) 티켓을 발행했습니다. 우리도
청년 교통비 부담을 줄이는 <청년 3만원 패스>를 제안합니다.**

전세사기 피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보완 입법을 약속해서 이미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입법은 물론, 전세대출에 따른
이자부담도 완화하겠습니다. 소득이 낮은 세입자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기부금 공제처럼 이월을 통해서라도 월세공제가 가능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무거운 책임감으로, 말이 아닌 행동으로,
민생 해결과 경제 회복을 주도하겠습니다.**

**비온 뒤 땅이 더 굳어지듯 더 단합된 힘으로 유능한 정당,
효능감 있는 정치를 실천하겠습니다.**

**민생경제회복을 위한 성장률 3% 달성,
확실히 추진하겠습니다.**

2023. 11. 2. 목. <성장률 3% 회복> 민생경제 회복 기자회견

이재명